

## 주요 일간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 평가

김 신 정\* · 이 정 은\*\* · 최 환 석\*\*\*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보급되고 고도로 발달된 대중매체는 현대인을 그 거대한 조직 속에 포괄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를 특징 지우는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김홍식, 1985).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생활 환경에 침투되어 우리는 하루도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수용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치주입, 태도형성 그리고 행위 형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문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의 한 형태로 제 1 세대 미디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현대인의 필수품이다(차배근, 1987; 최정호, 강현두, 오택섭 1990).

건강정보 또한 대중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세계가 정보화 사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비롯된 것이다.

즉, 건강정보는 더 이상 건강 전문가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에게 신문, 방송, 책 등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전달 하므로써, 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김희진, 1994).

한국 언론연구원의 한 조사 결과, 신문기사를 친구들과 화제로 삼는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의 약 93%에 달하여 신문기사가 독자들의 일상적인 화제로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한국언론연구원, 1984)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신문은 일반 대중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문은 현대의 갑작한 사회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신문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는 우리의 생활태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을 통한 각종 정보에 의해 대중의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지식내용도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다(윤재인, 1987).

건강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문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기사에도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문이 대중매체 가운데 그 사회의 건강요구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동 건강과 관련하여 신문은 아동 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아동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시간강사

\*\*\* 가톨릭대학교 가정의학과 조교수

심을 충족시켜 주며 지식과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지도적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신문은 아동 건강발전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그의 사명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식의 보급과 정보 전달 내지 지도와 계몽 면에서 볼 때 신문이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안인식, 1986).

신문기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상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안동근, 1986). 신문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중매체의 하나이고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주도하며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서지형, 1994). 또한 신문은 모든 발전에 필요한 생각을 유발시킨다. 즉, 신문은 생각의 근원이며 모든 발전은 생각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이상철, 1997).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소 자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 건강에 관한 관심은 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중요한 대중매체인 신문이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하는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대중매체가 대중을 조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건강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영향이나 역할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점에 착안하여 시도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 건강의 주요 정보원 중의 하나인 신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 건강정보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신문기사 보도의 중요성을 전제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대중매체인 신문의 아동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알찬 내용으로 아동건강에 대한 신문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문의 노력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를 평가한다.

## II. 이론적 배경

영어로 newspaper, press, journalism 등으로 표기되는 신문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로서 신문지(newspaper) 혹은 그 신문지를 매개로 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또한 신문이란 항상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그날의 사건들을 언어나 그림 등으로 증류(distilled)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새로운 사실을 주로 언어에 의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즉, 신문이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특정한 조직체가 뉴스나 정보를 모집, 처리, 제작하여 신문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차배근, 1987).

대중매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서로 다른 장,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문은 깊이 있는 해설로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이나 사진을 실어 기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김희진, 1994). 이렇게 신문은 전통적으로 지적인 독자층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인쇄매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문은 문화적 소산이며 사회생활의 현상으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매체이다. 신문은 인쇄매체로서 접촉은 반복될 수 있으며, 주제를 보다 더 충분하게 다룰 수 있고 특수한 전문적인 호소가 인쇄매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처럼 신문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라디오, TV, 영화, 잡지 등의 다른 매스미디어보다 독자에게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문이 사회환경의 하나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현상의 대변자로서 사회에 대한 대중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차배근, 1987).

이러한 신문의 영향은 대중의 관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수십만, 수백만 이상의 독자에게 전달되므로써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가 됨을 의심할 수 없다(서지형, 1994). 그래서 대중매체를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가치관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말한다(최선열, 1984). 오늘날 신문, 방송 등

의 대중매체가 확대되고 그 수용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부터 대중매체는 인간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수용은 매일 반복되는 일부에 그치지 않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문의 특성은 접촉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며, 반복 접촉이 가능하고, 메시지 내용의 다양한 처리와 다른 매체에 비해 설득력이 있고, 품위가 있고 기록성, 보존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에 의해 문장에 운반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때 읽는다는 것(본다는 것)이 듣는 것보다 주의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텔레비전 내용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읽을 수 없지만 신문의 속성 중 기록성과 보존성은 오래 남겨둘 수 있는 '인쇄된 종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읽혀진다. 신문 기사내용을 읽는데 관심이 먼저 가는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며 휴대가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대중매체로 누구든지 신문을 쉽게 구해서 언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다. TV, 라디오 등은 시간적 제약이 매우 많이 받고 내용에서도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오락적인 면에 치우치므로, 여론에 영향하거나 빠르게 마련이지만 신문은 정보와 의견기능에 치중하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고 지도해 나간다. 또한 잡지는 대부분이 월간으로 지속성과 보편성이 적으며 사실로부터 추상화되어 현실에 거리를 두는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문은 언제든지 적당한 시간에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그것의 영향력을 경시할 수 없다(한균옥, 1977).

신문의 기능을 신문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보느냐 아니면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신문의 기능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를 신문의 기능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보도적 기능으로서 이는 다양한 정보의 보도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이다. 신문은 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 자료에 근거하여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옳은 의견을 형성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의 교육과 사회적 훈련의 정도가 낮고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결핍된 경우에 객관적 사실의 보도로만은 신문이 보도의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지도적 기능으로서 이는 보도의 기능보다도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국민 의식에 방향과 형성을 명료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사내용에 대한 찬성자에게는 그 신념을 강화시키고 반대자에게는 전향시킨다든지 혹은 반대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다.

셋째, 평균화의 기능으로 이는 현대 신문이 거대한 발행 부수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의 독자를 평균적 인간의 평균적 관심에 부응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신문은 어느 신문이나 제각기 다른 특색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체로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문이 사회적 평균화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차이를 감소시켜 평균화한다.

이와 같이 신문의 세 가지 기능, 즉 보도적, 지도적, 평균화적 기능을 통해 신문이 대중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사를 제공한다거나 대중들의 올바른 사회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며, 그릇된 의식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하고 지역간의 거리를 좁히고 문화적, 계층적 차이를 좁혀 평균화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문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도라고 하는데 보도는 대중이나 개인이 흥미가 있을 정보나 지식을 모집하여 이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다(최기준, 1980).

신문 기사란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정확성(accuracy), 객관성(objectivity), 공정성(fairness) 또는 균형성(balance) 및 명료성(clariness)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사실(fact)'의 전달과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진실 전달,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명확함과 이해 가능한 내용을 충분한 양으로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것 등이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이인옥, 1985).

신문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중매체의 하나(김유정, 1983)이고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주도하며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신문은 개인의 사고를 발흥하고 지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이상철, 1997). 신문은 현실성, 정기성, 공식성, 기록성, 일반 관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보도적 기능, 지도적 기능, 평균화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박유봉, 김진홍, 1987). 다시 말해서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발생케 하여,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도하며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문은 뉴미디어로 각

광받고 있는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물을 읽는 것보다 20% 내지 30%가 빠른 것으로 판명되어 컴퓨터를 포함한 뉴 미디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문은 정보매체로, 신문의 정보기능은 그 어느 기능보다도 중요하다. 신문은 20세기의 주도적인 대중매체였고 또 이 같은 역할은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신문은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충족시켜주며 지식과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운주, 1988). 앞으로 건강 정보와 관련 기사를 독자들이 올바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재 빈도와 지면 할애 비율을 확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수용해서 아동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때 아동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만 1년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포함한 4개의 주요 일간 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신문의 건강정보 기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도된 내용 중 아동 건강과 관련하여 단순보도는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만으로 국한하였다. 이러한 건강정보는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의 태도, 신념, 가치를 변화시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집된 기사는 총 122개이었다.

##### 2) 연구자료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 앞에서 제시한 4개 일간지를 선정한 이유는 신문 발행 부수와 역사, 독자 확보 수를 고려하여 여론을 구성하는 중요도 등을 볼 때 우리 나라 4대 일간지이고 신문이 창간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일간지들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표성과 신문지령이 오래되어 편집의 방침이나 특성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성, 높은 발행 부수로 다수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야 된다는 영향성이 고려되어 이러한 신문을 채

택하였다.

또한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종류의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문은 다른 매체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고 내용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분석도구의 역할도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점이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위의 4개 신문에 실린 아동 건강과 관련되어 정보를 주는 기사이다. 아동 건강정보와 관련된 기사는 아동의 발달단계상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하였으며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신문 기사를 모두 확인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B4용지의 크기에 맞게 배열한 후에 일련번호를 매겼다. 그 결과 기사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B4용지 1장 당 평균 2-3개 정도의 기사를 배열하였으며 수집된 기사는 B4용지로 53매였다(부록 1 참조).

#### 3. 기사 평가방법

평가를 위해 수집한 신문기사가 배열된 B4 용지 53매씩을 평가자의 수에 맞게 복사하여 준비하였으며, A4 용지로 준비한 평가용지에 1번부터 122번까지 기사의 일련번호와 신문기사의 주제를 적은 122매의 평가용지를 준비하였다. 그런 후 평가자 각자에게 B4 용지의 신문기사 53매와 A4 용지의 평가용지 122매씩을 따로 배부하였는데, 평가자는 가정의학과 의사 4인과 간호학과 교수 2인을 포함한 총 6인이었다. 평가자는 개인적으로 건강정보를 읽은 후 평가지에 1점~5점의 척도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기사를 평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가자 1인 당 4-5일 정도였다. 평가단위는 각 기사를 한 단위로 하였다. 즉, 한 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평가도구에 의하여 항목별로 점수화하였다.

평가도구는 신문의 정보내용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는데 총 15문항으로서, 이해도(3문항), 정확성(3문항), 구체성(3문항), 명료성(2문항),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활용도(4문항) 등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도구는 신문관계 문헌과 논문 그리고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 다음 제작하였다.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사의 내용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 대상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는데 Cronbach's  $\alpha = .8934$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4. 자료분석방법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에 대한 122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건강정보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건강정보에 대해 수집된 총 10,980개의 문항에 대한 평가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의 특성

본 연구에서 아동 건강정보 평가를 하기 위해 선택된 신문기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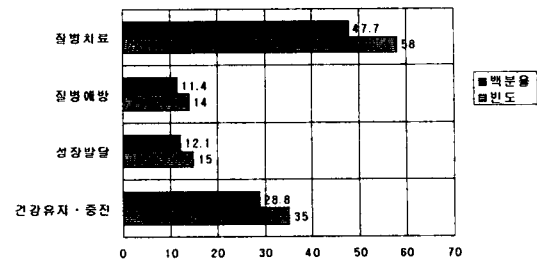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유지·증진, 성장발달, 질병예방, 질병치료 등의 건강범주로 나누었으며 질병예방과 질병치료 범주에 속하는 건강정보는 WHO의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하여 질병을 분류하였다. 또한 건강정보가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질병치료가 58개(47.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유지·증진 35개(28.8%), 성장발달 15개(12.1%), 질병예방 14개(11.4%)의 순이었다(그림 1). 이는 8개 신문을 대상으로 아동건강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을 모두 다룬 김신정 등(1999)의 연구에서 각각 46.7%, 28.0%, 10.6%, 14.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성장발달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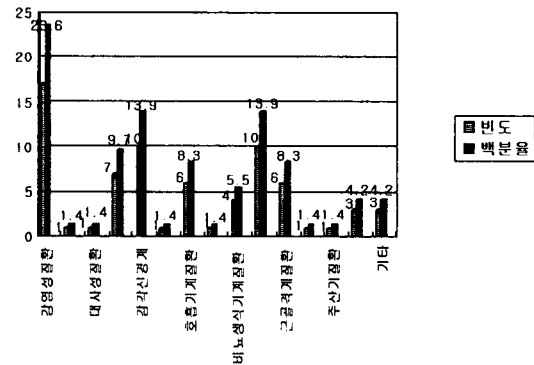
WHO의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23.6%), 감각신경계질환(13.9%), 피부질환(13.9%), 정신질환(9.7%), 호흡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8.3%), 비노생식기계질환(5.5%), 아픈 증상과 기타(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는 현재 우리 나라 아동에 있어서 감염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김화자 등, 1993)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문이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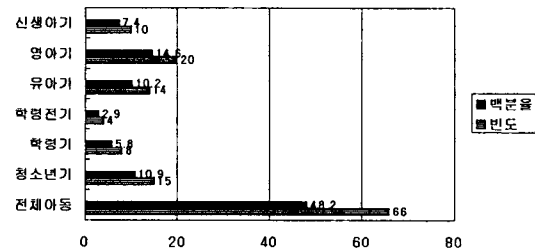
건강정보가 다루고 있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빈도를 보면 전체아동을 다룬 건강정보가 가장 많았으며(48.2%), 영아(14.6%), 청소년기(10.9%), 유아기(10.2%), 신생아기(7.4%), 학령기(5.8%), 학령전기(2.9%)의 순이었다(그림 3).



〈그림 1〉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



〈그림 2〉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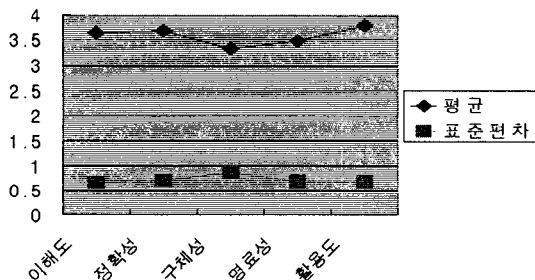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빈도

## 2.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 기사 평가

아동 건강정보 기사를 평가도구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각 문항에 대한 평균은 대부분이 3.23부터 4.07까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가영역에서는 활용도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정확성 3.68, 이해도 3.64, 명료성 3.48, 구체성 3.33의 순이었다(표 1)(그림 4).

〈표 1〉 각 항목의 기술 통계

	통계량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이해도	723	3.64	0.02	.66
정확성	723	3.68	0.02	.71
구체성	723	3.33	0.03	.88
명료성	721	3.48	0.02	.69
활용도	723	3.78	0.02	.69



〈그림 4〉 평가 영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이해도의 영역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가」, 「의학용어 설명이 적절한가」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항은 평균 3.82로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가」라는 문항은 평균 3.62로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사의 기술방법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어렵게 써 놓은 게 많다”가 과반수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연구(김희진, 1994)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들이 건강기사에 비해 과학기사에 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사의 경우,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학용어 설명이 적절한가」는 3.47로 용어 설명이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사내용이 쉬운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지 10% 미만으로 대부분이 용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희진, 1994)와 비교되는 결과로,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로 기본지식이 부족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대중매체에 용어에 대한 해설란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용어는 정확성을 갖는 대신에 그 쓰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문기사의 정보전달은 간편하고 빠르게 해주지만 건강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수 많은 의학용어를 대중이 배운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데, 오늘날 정보의 홍수로 의학용어를 비롯한 전문용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런 의학용어를 될 수 있으면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 용어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문기사의 이해도란 독자가 신문기사의 편집체제를 인지하고 그 속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지각하고 기억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정보란 신문의 편집자가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실을 말한다. 이해도는 신문기사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과 판독성(legibility)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이해의 정도를 통털어 일컫는 개념이다(안동근, 1987).

보통 신문(average press)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신문의 기사문은 어느 독자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한국언론연구원, 1990). 그러므로 기자는 기사작성 시 대중이 기사의 내용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신문의 기사문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중등 교육 이하의 교육만을 받고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을 하는 독자들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기사문을 작성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기사문은 고등 교육을 받은 독자들이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0). 이렇듯 모든 신문이 일정한 사회 계층에 속하는 독자만을 대상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국가 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신문 기사는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문장은 또 낱말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낱말은 물론 사실에 부합되는 적절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독자의 이해의 면에서 어휘 선택은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어려운 말에는 설명을 붙여야 할 것이다. 기사를 외면하는 독자층의 주요 이유가 기사의 난해성이라는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해도는 기사 작성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정확성의 항목에 포함된 문항의 평균점수는 「신뢰할 만 내용인가」가 3.82, 「정확한 내용인가」가 3.79, 「이론적으로 검증된 과학적인 내용인가」가 3.42로 나타나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신뢰할 만 하며,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조동호(1987)는 기사는 단어의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은 피해야 하며 한 문장의 말의 순서도 검토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가 살펴보아 내용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재일(1983)은 신문의 지도성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는 알기 쉽게 일반에게 이해시키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성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는가」, 「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단순하고 표면적인 정보만 제공하는가」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는 각각 3.38, 3.23, 3.37로 나타났다. 즉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1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충분했으며 단순하고 표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조직은 정보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특정한 정보의 전달을 제한하거나 혼용, 오용할 때 독자가 전달받아야 할 감각과 경험의 세계가 축소될 수 있다(홍용락, 1986). 대중매체 중 특히 신문, 잡지, 서적 등과 같은 인쇄매체에 대한 노출량은 개인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김진일, 1989) 신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료성의 항목에 포함된 문항과 평균 점수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가 3.45, 「내용 전달이 명료한가」가 3.60이었다. 즉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으며 내용전달이 대체로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동호(1987)는 신문의 생명은 보도기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제시하면서 신문의 보도기사는 간결성, 명료성,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정보전달과정에서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는 사실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에 왜곡을 일으켜 올바른 의견 및 판단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활용도 항목에 포함된 문항은

「아동 건강에 유익한 내용인가」, 「교육적인 내용인가」,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는가」, 「단순한 흥미거리인가」이었다. 각각의 평균점수는 4.07, 3.68, 3.29, 4.07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정보가 아동 건강에 유익했으며 교육적인 내용이었고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는가」의 문항에서는 최하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정보의 대부분이 건강범주 중 질병치료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질병치료는 결과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58.5%가 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희진, 1994)를 참고로 하여 독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들은 실용적인 기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오늘날 뚜렷한 독자들의 정보욕구이다. 즉, 의학분야,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분야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그 정보들이 산지식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기설(1987)은 과학, 의학, 보건, 환경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중의 기호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언론인들은 오늘날의 독자들이 실리적인 기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호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만약 독자가 신문의 정보에 대해서 실용적인 유용성을 만족시키면 높은 정보 추구 활동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의 정보가 모든 독자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독자들 간의 지식의 격차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된다.

신문은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때 다른 대중매체와 비교해서 교육매체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대사회 속에서의 신문의 사명과 역할은 아무래도 대중을 교육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되기 쉽다. 매스컴으로서의 신문과 사회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신문의 성격과 내용, 사회의 가치관과 구조를 변화시킨다.

또한 신문은 독자를 계몽, 교육하는 것이 그 본래의 책임과 사명이다(유시중, 1979). 신문의 정보는 제2의 현실이며 더욱이 신문은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있다(한국옥, 1977). 신문의 기능으로 교육의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신문은 물론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개인적 및 사회적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점에서 이 점이 우선 손꼽힌다. 신문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 독자들의 태도를 형성 혹은 변용, 강화시키는 합리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독자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주요 4대 일간 신문에 보도된 아동 건강정보는 이해도, 정확성, 구체성, 명료성, 활용도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대중의 아동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고 동시에 아동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보도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으로 신문이 아동 건강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발전을 주도하는 한 도구와 기능으로써 그 보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신문이란 가장 새로운 현재의 사상을 가장 짧은 규칙적 연속으로 가장 광범위한 공중들에게 정보를 매개, 전달함(김유정, 1983)으로써 장기간이고 지속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중요성을 전제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대중매체인 신문 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알찬 내용으로 아동건강에 대한 신문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문의 노력을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만 1년 동안 4개 일간지 중 아동 건강과 관련된 기사 중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그 결과 표본 수는 122개의 기사이었다.

아동 건강정보 기사의 특성과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정확성, 구체성, 명료성, 활용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건강정보를 평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범주에 따른 빈도는 질병치료가 58개(47.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유지·증진 35개(28.8%), 성장 발달 15개(12.1%), 질병예방 14개(11.4%)의 순이었다.
2. WHO의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23.6%), 감각신경계질환(13.9%), 피부질환(13.9%), 정신질환(9.7%), 호흡기계질환과 근

골격계질환(8.3%), 비뇨생식기계질환(5.5%), 아픈 증상과 기타(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건강정보가 다루고 있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빈도를 보면 전체아동을 다룬 건강정보가 가장 많았으며(48.2%), 영아(14.6%), 청소년기(10.9%), 유아기(10.2%), 신생아기(7.4%), 학령기(5.8%), 학령전기(2.9%)의 순이었다.
4. 평가항목으로는 활용가능성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정확성 3.68, 이해도 3.64, 명료성 3.48, 구체성 3.33의 순이었다.
5. 이해도 영역은 3.64로 용어설명이 적절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확성의 영역은 평균점수가 3.68로 대체로 신뢰할 만 하며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구체성의 영역은 평균 3.33으로 아동 건강정보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1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충분했으며 단순하고 표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명료성의 영역은 평균3.48로 내용 전달이 대체로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활용도 영역은 평균 3.78로 대부분의 정보가 아동 건강에 유익했으며 교육적인 내용이었고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신문은 아동 건강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아동 건강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며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과 관련된 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건강기자로 채용하는 기자 채용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도나 기존의 신문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의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문은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그 보도적, 지도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한된 기간내의 기사내용에 나타난 아동 건강정보를 평가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신문은 건강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주일에 건강 특집면을 정기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부서의 독립과 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강정보망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중과 대중매체에 대한 건강정보 서비스, 대중매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전문인과의 연계 등을 관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3.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자나 언론인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3). 신문기자들의 뉴미디어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정, 이정은, 이자형 (1999). 아동건강에 관한 신문 기사 내용분석. 아동간호학회지, 5(2), 167-184
- 김유정 (1983). 한국신문 여성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일 (1989). 매스 미디어 정보의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식 (1985).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의 매스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재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자, 정용민, 박상규, 박호진, 신미자, 강석철 (1993). 소아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관찰. 소아과, 36(5), 615-624.
- 김홍규 역 (1993). 방송뉴스론. 서울: 나남출판.
- 김희진 (1993). 우리 나라 신문의 과학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봉, 김진홍 (1987). 매스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서울: 박영사
- 서재일 (1983). 신문의 지도성에 관한 연구-지방신문사설이 지역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형 (1994). 주요일간신문의 장애인 관련기사 분석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해용 (1999). 보도자료의 기사화빈도와 문제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근 (1987). 한국신문기사의 이해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식 (1986). 신문에 나타난 교육관련 기사분석 (1960~1979년까지).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진환 역 (1990).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출판.
- 유시중 (1979). 신문에 게재된 체육기사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기설 (1987). 한국신문의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인 (1987). 신문기사에 관한 성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기 (1986). 정보화시대의 신문기사 정보은행. 서울: 우정출판사.
- 이상철 (1997). 신문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인옥 (1985). 뉴스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기자과 대학생의 상호지각(Coorient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호 (1987). 한국 신문기사스타일 분석-우리 나라 신문기사의 보도양식 분석 고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업 (1979). 주요 일간신문의 교육관계 사실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주 (1988). 유아교육 관계기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 (1987). 커뮤니케이션개론. 서울: 세영사.
- 최기준 (1980). 신문의 지도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열 (1984). 여성과 매스미디어. 「여성과 발전」, 한국여성개발원
- 최정호, 강현두, 오택섭(1990).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 최진우 (1979). 신문학강의. 중앙대학교 출판국.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94).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언론연구원 (1990).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 한균옥 (1977). 신문과 여론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선 (1991). 1980년대 의생활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동아·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락 (1986). 한국 신문기사에 인용되는 공개되지 않은 뉴스원에 관한 일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Tuchman, Gaye (1978), Making News :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Abstract -

Key concept : Newspaper, Child,  
Health information

## Evaluation of Child Health Information Articles in Newspapers

Kim, Shin Jeong\* · Lee, Jeong Eun\*\*  
Choi, Hwan 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ake the right direction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newspaper function about child health through evaluation of child health information articles in newspapers.

Data were collected 4 main daily newspaper by selecting child health information articles during 1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requency according to health category, disease treatment(47.7%) topped followed by health maintenance · promotion(28.8%), growth · development(12.1%), disease prevention(11.4%).

The frequency according to WHO international disease classification, infectious disease (23.6%) take most.

In evaluation area of child health information, practical usage(3.78) topped followed by accuracy(3.68), comprehensiveness(3.64), clearness (3.48), concreteness(3.33).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e-mail : kimsj@sun.hallym.ac.kr

### 〈부록 1〉 아동 건강 정보 평가를 위한 신문기사의 주제

- |                             |                                       |
|-----------------------------|---------------------------------------|
| 1. 척추측만증- 40도 이상 휜 경우만 수술   | 16. 키 크는 성장호르몬 - 심부전증 등 병 있을 때만       |
| 2. 척추측만증- 어깨 높이 다르면 의심을     | 17. 콧병                                |
| 3. 마사지로 아기질병 사전 예방          | 18. 이유식, 너무 일러도 늦어도 탈                 |
| 4. 여름철 야외 활동땀 30분마다 물 한컵    | 19. 충치예방 불소-코팅요법 효과 - 부정교합 교정 12세가 적기 |
| 5. 청소년 OK 렌즈                | 20. 근시교정 라식수술 40분이면 끝                 |
| 6. 우리 애 어깨가 왜 삐딱하지          | 21. 젖니 건강해야 영구치도 건강                   |
| 7. SB 중후군-보채는 아이 흔들면 위험     | 22. 키 키우기                             |
| 8. 우리 아이 허리가 휘었어요           | 23. 왜소증- 10-15%만 성장호르몬 주사 효과          |
| 9. 초등학교 0.1% 만성 신장염         | 24. 키 쑥쑥 크고 싶은데                       |
| 10. 수해지역 어린이 농가진-항생제 바르면 말씀 | 25. 치아 바로 잡으면 키 커진다                   |
| 11. 치카치카 칫솔질 제대로 하십니까       | 26. 주의산만한 아이 유형별 전문가 상담 받아야           |
| 12. 세살 치아가 여든까지 간다          | 27. 아이들 자위행위 대처법                      |
| 13. 색 변한 이빨엔 칫솔질 소용없어       | 28. 말더듬                               |
| 14. 자녀 터울 3년전후가 적당          | 29. 왔다갔다 들락 달락—우리 아이 좀 말려주세요          |
| 15. 포경 어린이 요로감염 확률높아        | 30. 식사장애                              |

- 
- |                                   |                                    |
|-----------------------------------|------------------------------------|
| 31. 학습과 수맥                        | 77. 쏠린 눈 벌어진 눈 똑바로 살피라             |
| 32. 수험생 자세 나쁘면 성적도 떨어진다           | 78. 엄마 학교가기가 싫어요                   |
| 33. 영아기 충분한 영양, 자유로운 환경 조성 지능이 쑥쑥 | 79. 코피나면 고개 뒤로 젖히라고?               |
| 34. 책가방 무게 체중 5%가 적당              | 80. 엄마 나 학교가기가 싫어                  |
| 35. 어린이 카페인 급단현상 조심               | 81. 엄마 칠판글씨 안 보여                   |
| 36. 잘 놀아야 잘 크다                    | 82. 소아 시력관리와 눈병                    |
| 37. 분위기 파악 못하는 감명 아동 늘어난다         | 83. 방학은 아이들 건강체크 적기- 치아관리          |
| 38. 유아 변비                         | 84. 비만                             |
| 39. 말이 6개월 이상 늦으면 정신지체 등 의심       | 85. 급성 중이염                         |
| 40. 아이들 침에서 니코틴이 나왔어요             | 86. 안과질환                           |
| 41. 패스트푸드가 어린이 비만 부른다             | 87. 기침감기 극성-약물보단 건강수칙을             |
| 42. 무관심이 어린이 성인병 부른다              | 88. 일본뇌염 예방접종 5월까지 해야 안심           |
| 43. 청소년 비만                        | 89. 여름같은 봄- 온 몸이 아파요: 눈 질환- 황사     |
| 44. 청소년 비만이 더 위험                  | 90. 피부질환- 반팔 나들이                   |
| 45. 요즘 장염 환자 급증 애, 어른이 따로 없다      | 91. 소아병- 장염, 수족구병                  |
| 46. 주근깨- 레이저 시술 열흘뒤면 깨끗           | 92. 어린이 축농증                        |
| 47. 아토피 피부병                       | 93. 독감 감기로 착각마세요                   |
| 48. 요충                            | 94. 얇어 재우는 아기가 빨리 뒤집는다             |
| 49. 무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 95. 어린이 천식- 짧은 시간내 완치는 안된다         |
| 50. 어린이 백신접종 안전수칙                 | 96. 자주 토하는 아이 젖 먹인후 10분 정도는 앉혀 놓도록 |
| 51. 신생아도 20%는 여드름 생긴다             | 97. 어린이 기관지 천식 조심                  |
| 52. 여드름                           | 98. 가공식품 이위식 괜찮나                   |
| 53. 어린이 사팔뜨기 크면 저절로 나을까           | 99. 애들 첫 시력측정 3-4세때 적당             |
| 54. 여름피부 불청객 쫓기                   | 100. 두통, 구토 잦은 아이 뇌종양 걸진 필요        |
| 55. 목 가누기에서 말하기까지 튼튼아기 36개월 육아법   | 101. 어린이 편도 제거 웬만하면 말아야            |
| 56. 가족 건강관리 평생계획 짜야               | 102. 우울증 걸린 것 같으면 칭찬-접촉 많이 해야      |
| 57. 아이들 몸의 말 귀 기울여라               | 103. 유아 감기 끝 귀찮이 중이염 의심해 봐야        |
| 58. 일찍 온 더위 어린이 피부병 조심            | 104. 감기 앓은 후 귀 아프면 일단 의심을          |
| 59. 성장기 자녀의 숏다리 바른 습관으로 키운다       | 105. 아기 뇌수막염도 뇌수막염 나름              |
| 60. 모유를 먹이세요                      | 106. 입 벌리고 숨 쉬면 수술 받아야             |
| 61. 에코바이러스 25 국내 첫 발견             | 107. 세 살직 류머티즘 여든까지 간다             |
| 62. 건선                            | 108. 0-157군 5세 미만 감염 땀 사망률 5%      |
| 63. 냉방인두염                         | 109. 중이염- 어린이 난청 주범                |
| 64. 얼굴 쉼룩 눈은 깜박 애가 왜 이리지          | 110. 청소년기 심한 디스크병- 레이저 부분제거수술 효과   |
| 65. 턱뼈 교정 5세때가 가장 효과적             | 111. 오줌싸개 어린이 왕따 될 수도              |
| 66. 턱- 야단치면 되레 악화                 | 112. 아기몸 부드럽게 마사지- 정서 안정 신진대사 활발   |
| 67. 우리 아가 보송보송 여름나기               | 113. 선천성 심장병                       |
| 68. TV 중독 방치땀 병 된다                | 114. 축농증 걸리면 머리 나빠진다고?             |
| 69. 아기 경기 변증을 아십니까                | 115. 보행기 일찍 태울수록 빨리 자란다?           |
| 70. 엄마 더워요 하더니 벌써부터 여름질환          | 116. 미숙아                           |
| 71. 소아 신부전                        | 117. 기형귀- 성형수술로 제 모습 찾는다           |
| 72. 잠 자는 자세와 아기 발육과는 무관           | 118. 마스크하면 감기예방? 손부터 자주 씻길         |
| 73. 아기 푸른 똥 음식물도 원인               | 119. 청소년의 다이어트                     |
| 74. 편도 너무 커 고생하는 아이 레이저 부분절제술로 가뿐 | 120. 조심! 비브리오 패혈증                  |
| 75. 어린이들 시력관리                     | 121.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고?           |
| 76. 아이들 입학철 잔병 조심하세요              | 122. 야뇨증 아이 기저귀 역효과                |
-